

해남지역 학생 오케스트라 잇따라 창단

땅끝·동초등학교 이어
11일 제일중 창단 연주회
26일엔 '땅끝' 정기연주회

해남지역에 학생 오케스트라가 잇따라 창단돼 새로운 문화예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해남 제일중학교(교장 오승국) 금강오케스트라가 11일 오후 6시 30분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창단 연주회를 갖는다. 해남 제일중 금강오케스트라는 해남 땅끝 오케스트라(2007년 창단)와 해남 동초등학교 희망오케스트라(2012년 창단)에 이은 세번째 지역 학생오케스트라이다.

해남 제일중은 지난해 8월 전남도교육청이 공모한 예술교육사업에서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학교로 선정돼 오케스트라를 조직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호른 등 악기를 구입하고, 학생 40여명을 선발해 화음을 맞춰 지난해 12월 학교축제인 금강아울제에서 첫선을 보였다.

이날 창단공연은 윤상민의 지휘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와 '캐리비안의 해적'



해남지역에 해남 동초등학교 희망 오케스트라와 땅끝 오케스트라에 이어 해남 제일중 금강오케스트라가 창단됐다. 해남 제일중 금강 오케스트라 연주회 모습. <해남군 제공>

OST와 하이든 교향곡 94번 놀람, 드보르 작 교향곡 9번 신세계 4악장,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등을 선보인다. 특히 소프라노 배진성(화원중 교사)과 바리톤 박흥근(목포 영흥중 교사)이 특별출연해 오승국 교장 작곡의 '시편 23편'과 '오라, 그대여', '당신의 눈으로'를 들려준다.

해남지역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땅끝 오케스트라는 26일 오후 7시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 10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51명의 단원과 7명의 지도교사들이 '봄이 오는 길목에서'라는 슬로건으로 영화 '레 미제라블'과 '캐리비안 해적', '겨울왕국' OST와 브람스의 대학축전 서곡, 첼로 하이든과 바이올린 차르다시, 플루트 리골레토, 주수미의 '천의 바람' 등을 협연한다. 이번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단원들은 2박3일 동안 해남 송호 학생수련장에서 합숙을 하며 감동 있고 즐거운 무대를 선보

일 준비를 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역에서 3개의 학생 오케스트라가 활발하게 활동하며 군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를 증진시키고 음악 인재를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교육청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도내 22개교에 학생오케스트라를 조직해 지원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진돗개 돌아온 마을에 '백구 테마센터' 문 열어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에
체험농장·민박실 등 갖춰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돌아온 진돗개 마을'에 '백구(白狗) 테마센터'가 문을 열었다.

진도군은 돈지리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하나로 13억원을 들여 백구 테마센터를 짓고 지난 6일 개관식(사진)을 가졌다.

지상 2층(건축면적 315.8㎡) 규모의 테마센터는 1층에 도·농 교류실과 북카페, 2층에 다목적실(체험민박 4실 포함)을 갖추고 있다. 도시민들을 위한 체험농장 7287㎡도 조성됐다.

특히 돌아온 백구와 관련된 체험 관광객을 유도해 도·농 교류와 주민에게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백구 테마센터 개관으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와 여름 관광지인 금강 해수욕장, 사계절 인기를 끄는 점도 웰빙 등산로 등을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됐다.



돈지리가 '돌아온 진돗개 마을'로 불리게 된 것은 마을에서 키우던 백구가 대전으로 팔려갔으나 7개월 만에 되돌아온 사연 때문이다.

지난 1993년 3월 돈지마을 한 할머니가 대전지역 애견가에게 판 백구가 7개월이 흐른 같은 해 10월 중순에 뼈와 가죽만 남은 채 3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돌아와

전국적으로 감동을 안겼다. 이는 진돗개의 충성심과 귀소성(歸巢性)을 잘 보여주는 일화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백구는 박 할머니 가족과 행복하게 살다가 2000년 2월에 폐사했다. 이후 군은 백구의 충성심을 기리고자 마을앞 광장에 '돌아온 백구' 동상과 시비를 세웠다.

/진도=박형영기자 hypark@

진도지역 귀농 농업인
품목별 8개 모임체 결성

진도지역으로 귀농한 농업인들이 품목별 모임체를 결성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센터 대강당에서 귀농인 품목별 모임체를 구성·발족하는 행사를 가졌다.

귀농인 약초 작목반 등 8개 작목반 160명이 참여한 이 모임체는 설립 모임을 개최하고, 품목별로 임원진 등을 선출했다.

센터는 이들 작목반에 대해 소모임체 학습조직으로 운영하면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자로 신규 선정된 진도군은 도시민의 진도 유치는 물론 기존 귀농인들의 정착에서 소득 안정까지 모든 분야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귀농인들의 품목별 모임체를 구성·발족해 센터의 품목별 전문 지도사를 배치한 후 농업전문기술, 생산·가공·유통 등을 단계적으로 지도해 안정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품목별 모임체를 결성하기 위해 모인 귀농인 160명은 진도천변 등 진도를 시가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진도환경 클린운동도 함께 전개했다. /진도=박형영기자 hypark@

해남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선정 국비 지원 받아 조경관리기능 전문가 양성 교육

해남군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받게 됐다.

해남군은 지난 2013년부터 국비사업에 공모해 3년 연속 사업에 선정됐다. 고구려대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3년 '강강술래지도사' 44명을 양성했고, 2014년에도 '녹색경관 관리조성'을 위한 조경관리지도사 20명을 양성했다. 이 가운데 16명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병원, 학교, 복지시설 등 조경관리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올해는 조경관리지도사와 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포함한 '조경관리 기능전문가 과정'으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적인 관리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전남도 교육청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도내 22개교에 학생오케스트라를 조직해 지원하고 있다.

군은 이달에 고용노동부와 '조경관리 기능전문가 양성사업' 약정체결을 한 뒤 3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해 4월부터 10월 까지 조경관리기능전문가 이론 및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료 후 취업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해 관련분야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발굴해 취업과 창업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며 "올해도 조경관리 및 식물 관리에 관심 있는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요자 전원이 취업하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 능력개발, 고용촉진,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안전문화운동 추진 진도군협의회 소속 26개 기관·사회단체회원 500여 명이 최근 결단식을 가진후 읍내에서 범군민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진도군 제공>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 만들자"

기관·사회단체 회원 500여명 가두 캠페인

진도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섰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진도군협의회 소속 26개 기관·사회단체회원 500여 명이 최근 철마광장에서 결단식을 가진 후 산시장까지 범군민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민·관·군·경은 안전진도 실천운동이 군민들의 생활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안전관리현장을 남독하고 결의문을 채택한 후 군민 안전의식 고취와 교통안전, 4대악(惡) 근절 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훈련과 함께 제54회 전남체전 개최를 앞두고 '내 집·내 점포 앞 청소하기' 캠페인과 7개 읍·면·재난 취약구 안부 살피기 등도 함께 홍보했다.

군은 민선 6기 군정 목표인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건설'을 위해 민·관·군·경 합동으로 안전 진도 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평상시에도 안전점검 및 훈련을 통해 위험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민 안전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형영기자 hypark@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건물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침단) 3층건물 25억(보2억 월1,000만)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 니주혁신도시 분양상가 투자상담환영

대지, 전용기능 녹지, 전/답

- 남구 노대동 대지 405㎡ 8억5천
- 광산구 우산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618㎡ 1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광산구 삼도동 1중주거지역 전 6,900㎡ 19억
- 광산구 대신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32억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000㎡ 14억5천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 해남군 대흥사부근 한옥민박집 매3.8억
- 남평읍 대교리 토지임대 3.3㎡당 2,000원 (0)적장 주거장 적합, 시설완비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새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주월동 아파트

▶한양아파트 1층/28평/방3개

정남향 / 학군최상 / 신혼부부적합
내부 리모델링 즉시 입주

- ◆ 매매 1억2500만원
- ◆ 전세 1억500만원
- ◆ 임대 3000만원/45만원 (5000만원/30만원)

상가 임대

▶서구 치평동 중흥 스카이31 1층 / 31평

800세대 / 시청입구
우측 GS편의점 입점
즉시 임점가능 / 상권 최상
권리금 없음(약국, 미용실, 옷가게 적합)

- ◆ 임대 5000만원 / 350만원

월산동 빌라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광전파크

4층 / 20평 / 정남향 / 신축 내부깨끗
방2 / 신혼부부적합 / 즉시입주

- ◆ 매매 9500만원
- ◆ 임대 1000만원/43만원 (3000만원/30)

땅 매매

▶광산구 우산동 210-32 답 900평

생산녹지 / 나무식재 가능
투자가치 좋음

- ◆ 용자 2억4000만원
- ◆ 매가 4억500만원

010-8676-1900